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3월 2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3월 30일 서울 백련사에서 개최된 '태고종 제21세 종정 추대법회'에서 운경 대종사가 다례식을 마치고 법회 봉행 장소인 무량수전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육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 종정 추대를 축하하고 태고종 발전을 염원했다.

운경 대종사 "불교인들이여 깨어나라"

태고종, 제21세 종정예하
운경당 상보 대종사 추대
3월 30일 백련사서 추대법회
대중 3000여명 운집해 봉행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운경 대종사는 취임 법어에서 '깨어남'을 강조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는 수행자가 되길 당부했다.

한국불교태고종의 최고 신성인 종정에 운경당 상보 대종사가 추대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3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에서 운경 대종사를 태고종 제21세 종정예하로 추대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육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 운경 대종사의 종정 추대를 축하하고 태고종의 중흥을 염원했다.

종정예경실장 동허 스님(백련사 주지)이 운경 대종사에게 법의 상징인 불자와 주장자를 봉정했다.

종정으로서 법석에 오른 운경 대종사는 취임법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깨어남'을 강조했다. 운경 대종사는 "작금의 불교계는 불교역사 왜곡으로 가장 혼란한 시기에 처해 있지만 수많은 종단에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들이 전한 종지를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불퇴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원효 스님의 화쟁정신이나 태고 보우 스님의 원융무애 사상, 만해 스님의 불교유신론에서와 같이 우리 불교인도 다시 한 번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운경 대종사는 정각을 이룰 원력을 세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운경 대종사는 "우리 종도는 항상 수행자라는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수행은 강원이나 선방이나 염불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도재 재장이나 법회 도량, 종무행정 집행 시에도 모두 수행이다. 수행자는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항상 해야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에서 "운경 종정예하는 태고 보우 원증국사의 수행가풍을 면면히 이어받아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며 본 종의 종지, 종풍을 선양하고 그 위상을 드높인 참된 수행자의 표본"이라면서 "오늘 추대식은 한국불교태고종의 종통 계승뿐만 아니라 1700년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의 정통 적자 종단으로서 미래를 견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소중한 법석"이라고 말했다.

각계각층에서도 축사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태고종도들이 종정예하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더욱 결집하고 수행정진력과 지혜의 덕화를 호지해 무량한 등불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태고종은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사상을 우리 시대에 구현하는 대승 교화 종단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다"면서 "종정예하 추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기원했다.

이날 추대법회 동참대중들은 발원문에서 새로운 종정 취임을 계기로 태고종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나날이 행복해지길 발원했다.

한편 운경 스님은 일제 강점기인 1943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출생했다. 1945년 광복 후 부모와 함께 귀국, 경주와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마쳤다. 1960년 서울 백련사에서 박설호 스님을 은사로, 박금봉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태고종 종무위원, 태고종 중앙종회 2~6대 의원 등을 역임했고 백련사 주지를 지냈다. 월간불교사 주간, 동방불교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태고종 원로회의는 지난해 12월 의장 도광 스님 등이 참여한 제21세 종정추대회의를 열고 운경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나눔의집 역사관 운영 특수법인으로 해법 모색

존립 기로 선 '나눔의집'
〈下〉 나눔의집, 앞으로의 방향은

건강 악화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박옥선·강일출·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하면 나눔의집에 소속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집의 양로시설 운영은 일반적인 양로시설과 달리 할머니들의 별세 이후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나눔의집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의 특수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부설로 역사관을 운영해왔지만 할머니들이 모두 별세한 뒤 양로시설이 사실상 폐쇄되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역사관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3월 29일 〈현대불교〉에 "경기도와 나눔의집이 함께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 등 나눔의집 자산을 옮겨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국가에 귀속될 자산을 특수법인으로 이관해 삼보정재의 유출을 막는 한편, 경기도의 공적 자금 투입으로 역사관이 공공성을 확보한 채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갈수록 후원금이 줄어들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눔의집 입장에선 앞으로 핵심사업이 될 역사관 운영 경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성화 스님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광주시와 3자로 특수법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역사관을 운영하는 데만 매년 8~10억원의 재원이 필요해 광역단체가 아니라면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수법인이 설립돼 나눔의집 자산을 옮긴 뒤에는 기존 사회복지법인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합병하거나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 해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화 스님은 지자체와의 특수법인 설립보다는 역사관의 국가시설 전환을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꼽으면서도 한일협력을 외교 과제로 삼아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공동문서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성화 스님은 또 그동안 나눔의집을 조계종 중심으로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공적인 영역과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 자비사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종교를 떠나서 진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추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운영불가
경기도와 특수법인 설립한 뒤
나눔의집 자산 이관하는 방향
"역사관 운영 공공성 담보돼"
총선 이후 논의해 연내 결론

후대에 교육하는 공간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화 스님에 따르면 경기도와 특수법인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총선 이후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낸다는 게 나눔의집 계획이다.

또한 월주 대종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나눔의집 운영에 제17교구본사 금산사가 중심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특수법인 설립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성화 스님은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께서도 나눔의집은 금산사가 아닌 조계종의 성과라고 하셨다"며 "금산사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월주 대종사를 빛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 이민우 기자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